

평범하지만 빛나는 인생으로의 초대

▶ 창작소리극 '레디메이드 인생',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창작소리극 '레디메이드 인생'이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9일 오후 5시 2차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채만식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과 판소리 '흥보와 놀보'를 현대극의 관점으로 새롭게 각색했다.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생활을 그려낸 채만식의 단편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은 당시 일본 유학까지 마쳤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주인공이 궁핍한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운 지식이 쓸모없다며 9살 어린 아들을 학교 대신 인쇄소에 취직시킨다는 줄거리다.

배웠지만 꿈 펼칠수 없는 등장인물 고통락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 삶 조망



창작소리극 '레디메이드 인생'에서는 고통락이라는 인물을 인텔리 백수인 흥보에 빗대어 갈 곳 없는 지식인의 남루한 현실을 보여준다. 작품은 배울 만큼 배웠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주인공 고통락을 통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망한다.

작품은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였다면,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사는 봉탁은 무엇의 피해자일까에 대한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김소라 연출가는 "소리극이 단편소설과 차별화 되는 점은 주인공이 꿈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대신 계속해서 꿈꾸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작품엔 평범한 인생도 가치 있게 만들고픈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우리 고미술의 향연... 고미술협회 전북지회전

(사)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완기)는 오는 31일까지 전주미술관에서 한국 고미술의 향연을 선보인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는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전'은 다양한 시대를 풍미하고 아우르는 도자기, 회화, 서예, 목공예, 금속공예, 민예품, 서첩 등 고미술품 500여점이 전시된다.

대표 출품작으로는 180에 제작된 '백자청화 화접문호', 고종 18년 정영진 소목장에 의해 제작된 '전주장', 정전 이상범의 '추경산수', 민화 '일월오봉도'와 '노안도' 등이 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조선 8도의 가구와 왕실에서만 사용되던 강화반달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청전 이상범(1897~1972)을 비롯해 의재 허백련(1891~1977), 심산 노수현(1899~1978)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6대 화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김완기 회장은 "이번 전시가 한국 고미술품



을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선조들의 철학과 생활상을 엿보고,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아름다운 가치를 살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상위원회, 오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류영화 상영회

(사)전주영상위원회는 경기영상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류영화 상영회를 갖는다.

이번 상영회는 우수영상물 외국어 자막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북 5개 컨소시엄 대학 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군산대 등에 재학 중인 학생 300

여명이 영화 '꾼'을 관람한다. 현빈과 유지태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 상영작 '꾼'은 현재 3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관계자는 "경기영상위원회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엔 중국어와 영어 외에도 다양한 자막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정유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문화 이벤트

정읍시립박물관, 12개 프로그램 16~17일·23~24일 4일간 운영



정읍시립박물관이 이달 송년 문화이벤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송년 문화이벤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며 송년의 의미를 새기고, 새해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체험 4종, 공연 4종, 상설운영 4종으로, 주말인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 4일 간 운영된다.

먼저, 16일에는 '나만의 천연향수 만들기(13:00~17:00, 문화체험실)'를 진행하고 '눈 크게 떠도 몰라 매직쇼(14:00~15:00, 1층 로비)'를 선보인다. 17일에는 '실용적인 예코백

만들기(13:00~17:00, 문화체험실)'와 '와인형극 책 속에 지혜가 쑥쑥(14:00~15:00, 1층 로비)'을 선보인다.

23일에는 크리스마스 향초 만들기(13:00~17:00, 문화체험실)와 판도마임 '뭉치'로 말해요(14:00~15:00, 1층 로비)가, 24일에는 '내 피부를 위한 천연비누 만들기(13:00~17:00, 문화체험실)', 블링블링 무지개색 '풍선쇼(14:00~15:00, 1층 로비)'가 펼

쳐진다. 이밖에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페이스 페인팅과 색칠 공부, 겨울에 받아보는 편지, 스탬프 찍기 등이 진행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박물관 위상을 더욱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피아노의 따뜻한 선율 느끼다

소리문화전당서 피아니스트 육민경 독주회

따뜻한 음색과 실득력 있는 해석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피아니스트 육민경이 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육민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진학해 예술사 졸업 후,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Wien Konservatorium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로부터 베토벤 소나타의 탁월한 해석과 최고의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후 산마리노 피아노 국제콩쿠르 피아노 듀오 부문 1위 및 현대곡 특별상 수상, 브람스 피아노 국제콩쿠르, 마르타 데벨리콩쿠르 등 유수의 대회에 입상하며 전문연주가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귀국 후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 협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럽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주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편 교육자로서 후학양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